

# 도내 수돗물 누수 5년간 2900억 증발

### 한정에 의원, "전주시 가장 많아... 상수관 노후로 손실액 늘어나... 교체는 매년 1% 그쳐"

도내 상수관 노후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수천억 원이 땅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상수관 노후로 인한 손실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손실액을 보면 2010년 471억 8,100만원, 2011년 538억 1,200만원, 2012년 585억 2,500만원, 2013년 656억 5,600만원, 2014년 673억 2,500만원이다. 이 기간 약 2,935억 원이 땅속으로 스며든 것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주시의 손실액이 가장 많았고 순창이 그나마 양호했

다.

2014년 기준 전주시의 손실액은 190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 115억 6,600만원, 고창 73억 2,800만원, 익산 55억 2,100만원, 임실 43억 6,700만원, 완주 35억 8,000만원, 무주 34억 8,100만원의 순이다.

정읍 25억 4,700만원, 진안 23억 6,700만원, 남원 21억 9,700만원, 부안 21억 5,700만원, 김제 19억 1,700만원, 장수 10억 3,600만원, 순창 2억 9,200만원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 의원은 추정했다.

2014년 기준 전북에는 1만 6,797km의

상수관로가 설치돼 있다.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상수관로는 4,991km로 약 29.7%에 달한다.

그렇지만 상수관로의 개량률·교체율이 매년 1%도 되지 않을 만큼 매우 낮아 누수에 따른 손실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도내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시의 경우 20년 이상 관로 비율은 49.6%로 절반에 가깝다.

총 관로 2,407km 중 1,194km가 노후 관로다.

이렇다 보니 매년 손실액이 좀체 줄어 들지 않는 상황이다.

타 지자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고 지적됐다.

지자체별 20년 이상 관로 비율을 보면 군산이 50.2%로 가장 많았고 전주에 이어 김제 41.6%, 무주 38.5%, 익산 29.8%, 정읍 24.7%, 진안 20.8%의 순을 나타냈다.

하지만 상수도관 교체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탓에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수도요금에 포함되고, 노후 하수관로에 이물질 등이 들어갈 수 있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며 "조속한 시일에 노후화한 하수관로를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익산시청 펜싱부 보상금 착복 일부 금액 담당 공무원 전달

익산시청 소속 펜싱부가 보상금을 착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지연 선수가 소속된 익산시 펜싱부는 착복한 보상금 중 일부를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등 총체적인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달 초부터 조사를 시작해 최근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해당 운동부 감독과 코치는 사퇴 처리하고 선수단 전원에게는 착복금액 전액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22일 익산시는 익산시청 소속 펜싱부 감독과 선수들이 훈련 수당을 초과 신청해 받는 등의 수법으로 22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과 코치 3명, 선수 9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시청 펜싱부는 전지훈련 기간을 부풀려 시로부터 보상금을 초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펜싱부가 2~3차례에 걸쳐 착복한 보상금은 2200만원에 달한다.

초과 지급받은 보상금은 감독이 관리하며 회식비와 공복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펜싱부 감독은 익산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2차례에 걸쳐 착복한 비용 중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혐의를 파악 후 최근 공무원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선수들에게 부당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한 환수조치 명령을 내렸다. /뉴시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한미당축제가 22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고창아름다움마을 풍물패가 신명나는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

## 전북 '스타 소상공인' 3개 업체 탄생

### 맑은샘자연농원·유니캡프·영국빵집... 시상금 1~2천만원

올해 도내 '스타 소상공인'이 탄생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2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스타 소상공인 공개모디션을 통해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스타 소상공인은 농업법인 맑은샘자연농원, 유니캡프, 영국빵집 등 3곳이다.

이들 업체에게는 마케팅과 시설 개

보수,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시상금(각각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이 주어진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성공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3월부터 전북도와 JTJ전주방송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개모디션을 추진해왔다.

총 29개 업체가 참가를 신청했고, 서류·현장·발표 심사 등 3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할 8개 업체가

가려졌다.

본선인 공개모디션에 참가한 8개 업체(스타 소상공인 포함)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저금리 특별보증으로 업체당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전문 심사위원 7명과 도민평가단 150여명이 업체별 아이템 경쟁력과 차별성, 성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최종 3개 업체를 선발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군산 앞바다 해상테러 어렵없다'

### 군산해경 '해상테러 대응 항만방호 훈련' 실시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테러에 대비한 훈련이 군산 앞바다에서 진행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고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2일 군산 국제여객선 터미널과 1만7천톤급 국제여객선(스다오호, 군산~ 中석도)에서 '해상테러 대응 항만방호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과 국제테러단체 테러경고 등 국내외 안보 위협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2개 유관기관 200여명이 참가하고 모두 15척(대)의 항공기와 경비함정 등이 동원됐다.

훈련은 국제여객선에 잠입한 테러범이 폭발물 설치 뒤 승객을 인질로 잡고 공해상으로 도주하려는 가정 하에 대응체력의 신속한 현상 파악, 도주로 차단, 진압작전 및 사후 수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진압작전은 항공기에서 패스트로프로 하강한 해양경찰 특공대가 전술제압 작전 및 저격, 폭발물 처리 등의 순 과정이 시연되면서 실제상황을 방불케 했다.

또 이번 훈련은 군(軍)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민일의 사태에 대비한 합동훈련도 동시에 진행돼 책임항만에 대한 완벽한 해상테러 대비 체제 구축과 통합방위 작전능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인식 군산해경서장은 "올 3월 군산 앞바다에서 대규모 지진·해일 대응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후방테러에 대비한 민일의 사태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한다면 예방과 사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훈련 종료 후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며, 국가 중요 임해시설에 대한 보안상향도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문정곤 기자

## 전북도, 내년 무상급식비 200원 인상

도내 학교급식비가 인상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해 내년부터 학교급식 지원 단가를 200원씩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초등학교는 2,200원에서 2,400원으로 중·고등학교는 2,900원에서 3,1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번 급식비 인상으로 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될 예산은 올해보다 약 30

억 원이 늘어난 697억 원이다.

도는 도교육청과 무상급식비 인상에 대한 실무협의를 마친 뒤, 다음달 4일 열리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급식비 인상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제공과 균형 잡힌 식사제공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육군 35사단, 26일부터 '화랑훈련'

### 닷새간 전북 전역에서 실시

육군 35사단은 '2016 화랑훈련'이 오는 26일부터 닷새간 전북 전역에서 실시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35사단과 전북도, 전북경찰청, 각 시·군 등 전북의 민·관·군·경이 참여해 침투 및 국지도 발과 전사전환, 전면전 등 위기상황을 가정해 통합방위작전 수행절차와 작전수행능력을 점검받기 위해 마련됐다.

또 도심지역 테러대비훈련과 대량전상자 처리훈련 등의 실제훈련과 적

침투대상 지역과 예상 도주루에 대한 합동 검문소 운영 및 불심검문, 예비군 불시동원훈련 등도 실시한다.

특히 주민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신고 훈련도 이뤄질 예정이다.

35사단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며 "성과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 기간에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민간인 복장의 거동수상자나 정글모를 착용한 가상 적군을 발견하면 1661-1133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